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 세션 23: 로마서, 1부

Ted Hildebrandt 박사

이것은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Ted Hildebrandt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3 로마서 1부입니다.

### A. 간단한 검토: 1 MJ, 2MJ, 투옥 [00:00-4:22]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업 시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았고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바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구원에 대한 경험에서요. 그런 다음 바나바와 요한 마가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주로 아시아로 가고 싶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트로아로 인도하셔서 루가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또한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여겨졌던 리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루가는 그와 함께 트로아를 거쳐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에 있었고 기본적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혼자 아테네로 내려와 고린도에 정착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2차 선교 여행에서 그는 고린도에서 2년을 보낸 후 안티오크로 돌아갔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 그는 아시아 속주에 있는 에베소로 곧장 직진합니다. 아시아라는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 속주입니다. 그는 제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서 그는 고린도에서 2년을 보냈고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3차 선교 여행에서 그는 고린도로 가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고린도에서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근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들은 그를 붙잡았고 그는 해안에 있는 카이사레아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루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마리아와 사도들과 이야기하고 루가 복음을 연구하러 다닐 것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펠릭스, 페스투스, 아그립바가 그가 가는 세 사람보다 먼저 그를 재판하고 싶어했습니다. 펠릭스는 뇌물을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펠릭스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페스투스가 인수하고 페스투스는 유대인들의 칭찬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 유대인들이 좋아할 테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벽에 등을 대고 “저는 카이사르에게 호소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페스투스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카이사르에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로마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페스투스는 혐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는 로암을 무엇으로 보낼까요? 그는 어떤 혐의를 제기할까요? 그는 왜 이 인용문을 범죄자로 로마로 보내는 걸까요? 그래서 아그리파가 개입한 것이고 아그리파는 유대인의 관습과 권리 등을 아는 듯합니다. 그래서 페스투스와 아그리파는 일종의 동맹을 맺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인터뷰합니다. 바울은 아그리파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그리파는 “거의 설득당했지만, 놓쳤다”고 말합니다. 아그리파에 대한 유명한 노래와 기독교 중 하나입니다. 아그리파는 “바울, 너는 너무 똑똑해서, 배우는 게 너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보내집니다.

로마로의 여행과 사도행전 2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루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났고, 몰타 섬에서 난파선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내려와 뱀을 집어들었고, 뱀이 그를 물었고, 결국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있을 때, 약 2년 동안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기 62년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2년 동안 풀려났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다시 들어갔고

, 그곳에서 참수당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당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보다 몇 년 전에 로마에서 죽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겹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가 죽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 나. 바울이 서신을 쓴 역사 [4:22-10:51]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간단한 리뷰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 초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훌륭한 테오폴리에게 바울의 재판을 돕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과 연대순으로 어떻게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로마 투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첫 번째 MJ를 했을 때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첫 번째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이 배우기를 정말로 강력히 주장한 유일한 날짜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서기 50년경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날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서기 50년 예루살렘 공의회보다 몇 년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기 48

년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논쟁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거대한 논쟁이 있지만, 대체로 그는 첫 번째 선교 여행 후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과 유대인 및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은 기원후 50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이 쓴 가장 초기의 편지라고 믿고 있으며, 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직후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원후 50년에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이 그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선교 여행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쓸 것입니다. 이제 그는 두 번째 선교 여행, 고린도에서 2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것이고 그곳에서 2년을 정착할 것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까지 두 개의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에 있고 그는 기본적으로 디도가 올라가고 돌아오는 것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씁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은 첫째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첫 번째 서신이고 갈라디아서는 나중에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를 위한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도를 기억하세요. 에베소는 고린도에서 에게해를 건너 거의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이 오갈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일을 마치고 마케도니아로 여행을 떠났고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후서를 써서 고린도인들에게 “이봐, 내가 내려갈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좀 기부해 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준비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기쁘게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에서 부유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근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이것의 일부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낸 후 고린도전서를 쓰고 마케도니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내려와서 편지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고린도인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없는 고린도인에게 보낸 세 번째 서신을 썼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세 번째 선교 여행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돈을 구하러 왔을 때.

그는 고린도에 있는 동안 로마서를 썼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서쪽에 있고 그는 동쪽,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그가 기본적으로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찾지 못했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인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부 과정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로마로 쓰여진 다음 포이베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당시 로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이후, 바울의 첫 번째 로마 감옥 수감 기간 동안, 우리는 서기 60년 62년 63년경에 첫 번째 로마 감옥 수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타 섬에서 배가 침몰한 후, 그는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는 가택 연금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고 그 후 첫 번째 로마 감옥 수감 이후, 그는 감옥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을 씁니다. 감옥 서신은 고든 대학에 있으며, 감옥 서신 전문가입니다. 댄 다코 박사는 감옥 서신에 대한 30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와 감옥 서신

전반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모두 온라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YouTube에 가서 댄 다코 박사와 감옥 서신을 입력하면 그의 30개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는 집에 손님을 초대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는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썼고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감옥 서신들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저는 그것을 Pec 또는 P PEC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서신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잠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로마 투옥과 두 번째 로마 투옥 사이에 풀려난 동안은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를 쓰고 디도서도 썼습니다. 이것들은 목회서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교회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많은 것들은 교회에 쓰여졌습니다. 이것들은 목회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울이 주님 안에서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와 함께 여행하는 동료로 가졌습니다. 이것들은 개인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목회서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로마 투옥입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67, 68년경일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67, 68년에 바울은 마지막 서신을

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마지막 유언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기본적으로 요한 마가를 데려오고 양피지를 가져오라는 몇 가지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로마 투옥에서 마지막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보면,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사도행전은 이러한 다양한 바울 서신의 배경 연대기를 제시합니다.

#### **다. 바울서신을 주제별로 분류함 [10:51-13:29]**

이제 주제별로 그룹화하고 싶고, 연대순으로 살펴보고, 신학적으로 그룹화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신학 용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종말론적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말론을 다루는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가 될 것입니다. 종말론 또는 종말론적 서신이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말론이라고 말할 때, 아마도 신약에서 가장 큰 책은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읽으신다면, 다니엘서, 위대한 종말론적 책 중 하나인 종말에 대해 말하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썼습니다. 그것들은 종말론적이라고 불립니다.

구원론적 서신 이 서신들은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구원론 또는 소테르는 구원 또는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구원과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가 있습니다. 이제 책의 세부 사항을 깨닫는다면 이 범주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약간 중복이 있고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요적으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는 구원에 관해 말하는 서신입니다.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특히 고린도서는 교회의 문제에 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린도후서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론적 서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서신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리스도론적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이것들이 마지막으로 교회론적 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론적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들은 목회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개인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종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의 지도부와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디모데전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교회를 위한 교회론적 서신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의 주제별 배열입니다.

#### ㄷ. 교회사와 로마서 [13:29-19:21]

이제 주제를 바꿔서 로마서 자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이고 거기서 시작하여 로마서,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교회 역사에 대한 논평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훌륭한 책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신학의 큰 부분으로 삼은 몇몇 주요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원후 386년경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종의 플레이보이였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는 파티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가 주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일어난 일은 여기 고든 칼리지의 많은 학생들이 1학년 세미나에서 읽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 13장, 로마서 13:13과 14를 읽고 회심했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예의 바르게 처신하고, 방탕과 술 취함이나 음란과 방탕함이나 다툼과 시기함이나 하지 말자.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죄악의 본성과 방탕함,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 어거스틴은 정말 죄악의 본성과 방탕함, 그런 것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그의 마음을 찢렸고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역대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인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여러분이 독서 목록에 넣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거스틴이고 그것이 그에게 미친 엄청난 영향입니다.

이제 어거스틴 이후 교회는 천 년, 천 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친구 데이브 매튜슨이 말했듯이, 마틴 루터와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을 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 개신교, 개신교 종교 개혁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은 1517년, 1522년경에 이 로마서로 개신교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루터는 “이 서신은 실제로 신약의 주요 부분이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며 그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 단어 단어로 알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 학생들은 단어 단어로 알아야 합니다. 루터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를 단어 단어 단어로 외워야 하지만 “또한 매일 영혼의 일용할 양식으로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읽거나 숙고할 수는 없으며, 더 많이 다룰수록 더 귀중해지고 더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로마서가 그에게 엄청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런 다음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본질 측면에서 그에게 엄청났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루터가 로마서에 대한 그의 주석에 서문을 썼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로마서에 대한 이 주석을 썼습니다. 그는 서문을 썼고,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1740년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에서 조지아와 미국으로 여행을 갔지만, 주로 영국에서 성공회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웨슬리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나서, 존 웨슬리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주님을 알게 된 때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 웨슬리의 핵심 단어 중 하나이며,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은 결과 기독교인이 된 때였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웨슬리안 교회와 나사렛 교회, 그리고 웨슬리와 그의 추종자들이 시작한 많은 다른 교회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와 의견이 다릅니다. 그는 신정통주의라고 불리는 것의 표준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자유주의로

돌아갔고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했습니다. 바르트, 기본적으로 20세기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정통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날짜와 저자에 대한 질문과 성경을 찢어버리는 모든 것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멈추자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르트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었고, 선반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신학 책을 썼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그의 주석은 훌륭하고 매우 긴 로마서 주석으로, 20세기의 칼 바르트는 아마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와 의견이 다릅니다. 신학자들이 어떤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동의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르트의 경우, 바르트에게는 장단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개신교 관점에서 볼 때 그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의 모든 작업의 진정한 열쇠였고, 이 신정통주의 운동을 되살려 20세기 초반과 19세기 후반에 지배적이었던 자유주의에서 진자를 뒤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즉 로마서는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바르트,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핵심적인 책입니다.

## 마. 사도 바울의 약력서 [19:21-26:37]

로마서로 넘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나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로마에서의 두 번의 투옥을 다루면서 그에 대한 전기적 스케치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타르수스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지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요. 지중해가 들어오고, 여기는 터키이고, 여기는 시리아로 내려가는 곳인데, 시리아와 터키가 만나는 모서리에 바로 터키로 조금 들어가면 타르수스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가 타르수스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것에 대한 노래 "Born Free"를 만들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타르수스에서 태어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람들을 만나서 "로마 시민권을 위해 큰 값을 치러야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에게 호소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발과 다른 것들 없이 그를 때릴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타르수스, 그는 타르수스에서 태어났고, 그가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문화를 혼합한 것 같고, 저는 바울을 이 세 가지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는 일종의 교차점입니다. 첫째,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제가 사울이라고 말할 때 그의 유대인적 뿌리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또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추측은 바울이 된 사울은 아마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둘 다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럼 바울, 그럼 그가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묘사한 것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5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육신을 신뢰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유대인 남자 아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의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있어서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리새인, 위선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리가 없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함과 가난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매우 헬레니즘적인 사두개인들처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에 관해서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할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적 의로움에 관해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손해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 절에서 바울은 “나는 유대인으로 다소와 길리기아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따라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만약 누군가가 유대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모든 시대를 통틀어 네 명의 위대한 랍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힐렐, 위대한 랍비, 힐렐, 아키바, 샬마이, 그리고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바울은 아마도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아인슈타인 밑에서 공부했다”고 말했고, 갑자기 “와,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가말리엘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똑똑했을 것이고, 가말리엘의 학생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아요, 다음으로 그의 로마적 측면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고, 또한 그는 정치적으로 로마인입니다

. 이것은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나오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잡아당겨 채찍질하려고 하였을 때.”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그는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그들은 바울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들은 그를 채찍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잡아당겨 채찍질했고, “바울이 거기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그리고 대답은, 아니요, 저는 로마 시민입니다 . 저를 채찍질하기 전에 먼저 저를 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100명이 넘는 군인을 거느린 백부장에게 권위 있게 그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사령관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사령관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이 넘는 백부장이 사령관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건가요?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자 사령관이 아니라 백부장이 바울에게 직접 갔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령관은 바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 “말해 보세요. 당신이 로마 시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령관은 “내가 돈을 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백부장 위에 있는 사령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시민권을 위해 큰 값을 치러야 했지만, 나는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의 죽음에서도 정치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로마 시민으로 참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그리스어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문화적으로 바울은 문화적으로 그리스인이고, 종교적으로 유대인이며, 정치적으로나 로마와 그리스 문화권에서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과 다른 곳에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스 시인인 메안더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에피미니데스 와 아레타스라는 그리스 시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울은 이 둘을 합친 것입니다. 그가 마르스 언덕에 있었을 때, 아테네에서 돌아다녀서 이 모든 우상을 보고 “나는 지금 당신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을 선포할 것입니다. 당신은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당신들의 시인 중 일부가 말했듯이요.”라고 말하며 아테네의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아레타스, 에피메니데스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이나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시인과 그가 편지에서 비교적 반쯤 자주 인용하는 다른 것들도 알고 습득했습니다.

흥미로운 일 이죠 , 특히 고든 칼리지 같은 리버럴 아트 칼리지에서요. 우리는 기독교 하위 문화권 밖의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바울은 많은 책을 읽었고, 그것을 접착점으로 삼아 복음과 다른 것들을 그곳에 전파했습니다.

#### ㄱ. 사도 바울의 특징 [26:37-35:27]

이제 이것들은 사도 바울의 특성에 대한 일종의 식료품 목록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특성들을 꺼내서 그것을 입증하는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바울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도덕적으로 정직했습니다. 바울은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23:1입니다. 바울이 산헤드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산헤드린은 유대를 관할하는 사법 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법 기관에는 유대인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마치 70명만 있는 대법원 같았습니다. 바울은 산헤드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꽤 큰 진술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산헤드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양심에 따라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일입니다. 바울은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적인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는 지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서신과 로마서에서 그가 전개한 주장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읽습니다. 그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는 매우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유창합니다. 여기 베드로의 논평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초기 교회에서 말했듯이 큰 기둥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에 대한 논평을 할 것이고 저는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알고 예수와 매우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3:16에서 베드로가 성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의 인내가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모든 편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16에서 베드로는 바울이 이미 쓴 여러 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들은 이미 베드로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봐, 나는 이미 알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편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썼고 베드로는 바울이 쓴 여러 편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복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그 편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편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무지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을 왜곡하듯이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편지를 넣고,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다른 성경을 왜곡하듯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의지의 힘이 강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지적이지 않고, 말이 유창하고, 연설이 잘하고, 도덕적 나침반이 강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결정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보통 이런 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종의 비꼬는 듯한, 냉소적인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할 정신이 나갔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할 것입니다. 그는 “나는 그 이상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인가? 이런 말을 할 정신이 나갔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다면, “나는 그 이상이다, 나는 훨씬 더 열심히 일했다. 나는 더 자주 감옥에 있었다.” 이제 그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요? 그는 감옥에 있었던 것을 자랑합니다. 부모님께 감옥에 있었던 일을 자랑해 보세요. “저는 감옥에 더 자주 갇혔고, 더 심하게 매를 맞았고, 거뜰거뜰 죽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1대를 뺀 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한 대씩 줄였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39대를 맞았다면, 그들은 자비롭다고 말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1대를 뺀 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세 번은 막대기로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세 번은 난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몰타 섬의 통로에서 난파된 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저는 세 번 난파되었습니다. 저는 넓은 바다에서 밤과 낮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떠다니는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을지 말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랑하는 방식이고, 그의 끈기와 의지,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대한 주석을 쓴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크레이그 키너 박사입니다. 저는 그를 애즈베리 신학교에 데려가서 비디오로 찍었고 키너 박사를 아주 잘 알게 되었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신의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지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는 복음에 너무 흥분해서 필라델피아로 나갔습니다. 그는 당시 필라델피아에 있었고 필라델피아의 거리 모퉁이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키너 박사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구타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를 위협하며 “여기로 돌아오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이런 강인함을 보지 않습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비롭습니다. 그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맞은 것을 언급합니다. 다섯 번이나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의 등은 다진 고기 같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9:3과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끊임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동족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큰 진술을 합니다. “내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내 동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일 지경까지 쳤지만, 바울은 여전히 큰 자비와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고 비통해하고 악의를 품는 것보다 아름다운 반응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비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재밌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이라는 작품에 대한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일부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 문서이지만,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울의 신체적 묘사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약간의 맥락을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했고,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세 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세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폴이 돌에 맞아 머리 주위를 맞았고 폴의 시력이 손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폴의 눈은 나를 위해 눈을 뽑아냈을 것이라고 말한 곳 중 하나에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지 휘트필드와 비슷해요. 조지 휘트필드를 기억하시나요? 그의 눈 중 하나가 들어갔고, 한쪽 눈이 똑바로 앞으로 나오지 않아서 닥터 스퀀텀이라고 불렸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바울이 당신이 나를 위해 눈을 뽑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의 눈이 흐르거나 뭔가 잘못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는 "내가 당신에게 쓸 때 얼마나 큰 글자를 쓰는지 보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보는 데 문제가 있었고, 그는 크게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필체는 독특해서 잘 볼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투사했어요.

이 바울과 데클라의 행전에서 그는 "바울이 키가 작은 사람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압니다. 바나바가 제우스로 여겨졌고 바울은 주요 연설자였기 때문에 헤르메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글썬요, 제우스는 더 큰 사람이 될 것이고 헤르메스는 더 작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리스트라에 있을 때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리스트라에서 신이 되었을 때. 하지만 그는 작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완전히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울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키가 작고 대머리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머리에 구부러진 다리, 눈썹이 만나는 좋은 상태의 몸.” 그래서 이런 두꺼운 눈썹과 그런 종류의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코는 다소 굽었고 친절함이 가득합니다. ” 그래서 이런 종류의 굽은 코, 두꺼운 눈썹, 짧고 대머리인 사람이 생깁니다 .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신체적 묘사 중 가장 초기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는 초기의 것들 중 일부가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당신이 보는 것은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서 모세가 기도하자 온 나라가 구원받았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듭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다시 한 번, 우리는 한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듭니다. 거기서는 대단합니다.

#### **나. 로마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요 문제 [35:27-39:00]**

로마인 여러분, 우리는 그가 고린도에 간 후에 고린도에서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실 스페인에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가고 싶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스페인에 가고 싶었고,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온다고 말했고, 아마도 서기 57년경에 제3차 선교 여행 때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적 또는 연대적 배경일 뿐입니다. 서기 57년은 그 날짜가 꽤 잘 확립된 시기입니다. 고린도에서 온 제3차 선교 여행이 그 책이 쓰인 곳입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종류의 책이 의심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아닌 책이라고 불리는 책, 아마도 디모데와 디도서와 같은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1:11에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15장 28절에서 그는 “내가 로마로 너희에게 간다”고 말하지만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가고 싶어하고 스페인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15:28에서 그는 스페인을 언급했습니다. 스페인은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종류의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주요 요점 또는 명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매우 수사적으로 정교합니다. 명제는 보통 사람이 이 책을 쓰는 이유라고 말하는 주요 진술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요 요점입니다. 바울의 진술, 그의 명제, 그의 주요 요점은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발견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은 “먼저 유대인을 위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어울리는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인한 의입니다. 기록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를 통해 전달되며, 하박국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 2:4입니다. 그가 인용한 것은 일종의 멋진 구약성경 인용문입니다. 하지만 복음, 구원과 의의 복음이 거기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말하고, 저는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윌슨 박사는 그의 책,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로마서 11장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올리브 나무와 이방인이 지금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대교의 견고한 줄기에 접붙여진 야생 올리브 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유기적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올리브 나무이고, 그 가지 중 일부는 잘려 나갔고 이제 이방인이 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거기에서 논의됩니다.

##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인사 [39:00-42:54]

로마서 16장에서 사람들의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서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저 교회 내의 문제나 교회 내의 사람들에 대한 권고나 칭찬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고, 선교 여행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저 사람에게 인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는데, 꽤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저 사람에게 인사하고, 당신의 어머니도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인사하는 흥미로운 사람들 중 일부를 살펴봅니다.

그는 헤롯의 집안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헤로디안이라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헤롯 왕은 헤롯과 로마 사이에 로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가 배경이었던 이두매인들. 그들은 그 사이에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헤로디안을 언급하는데,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헤롯의 혈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헤롯의 집안에서 온 그 사람을 언급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여성을 언급하고, 사도인 유니우스라는 여성에게 인사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여성은 사도, 그리스어로 apostellos입니다. 이 여성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부활 후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12사도를 기억하십니까? 이 여성은 12사도라는 의미의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로 보낸 사람입니다. 사도는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이 여성을 유니우스라고 부르고, 그녀는 여성형 단어입니다. 그녀는 여성이고 여기서 사도라고 불립니다. 정말 흥미로운데, 아마도 신약에서 여성이 사도라고 불리는 유일한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용어는 12명 중 한 명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마티아는 12명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12명은 다른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여기서 사도라고 불립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피비는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피비는 편지를 실제로 나르는 하인이에요. 바울이 로마인에게 편지를 준 사람이 바로 그녀인 듯해요. 로마로 편지를 가져간 사람도 그녀예요. 바울은 "그녀를 받아라, 피비는 편지를 나르는 사람으로"라고 말해요.

이 친구는 데르티우스입니다.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 친구는 사실 꽤 흥미롭습니다. 그는 아마누엔시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마누엔시스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를 비서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로마서를 적은 사람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동안 이 코멘트를 적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동안 데르티우스는 이것을 적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나온 곳이며 바울이 말했습니다. 데르티우스는 그것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데르티우스는 “나 데르티우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6장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적은 나 데르티우스가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신자입니다. 데르티우스는 바울의 편지를 그를 위해 쓴 신자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필체가 나쁘고 그의 눈이 나빴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데르티우스는 실제로 이것을 기록했고, 편지를 쓰고, 쓰고, 사물을 적절한 형태로 정리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표준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에마누엘시스였던 데르티우스. 우리는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아니고, 남자나 여자도 아니고, 종이나 자유인도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들이 흥미로운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일도 있습니다.

## II. 로마서와 하마르티올로지 (죄) [42:54-58:30]

바울, 저는 이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1-2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희생 제도를 취하고 사람들을 살아있는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희생 제도를 취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강력한 것으로 변형시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을 하지 않지만 바울은 그 희생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인하여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은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 세상의 본보기에 더 이상 동화하지 말라." "이 세상의 본보기에 동화하지 말라." 이것은 요한 1서와 여기에서 모두 세상에 동화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는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희생 제도를 변화시키면서 그 중 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책 자체로 넘어가서, 여기서 먼저 하마르티올로지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마르티올로지는 로마서의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마르티올로지란 무엇일까요? 어떤 학교에서는 하마르티올로지 전공을 한다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학교는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그냥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병적일 것입니다. 어쨌든 로마서 1-3장은 죄에 초점을 맞춥니다. 로마서 1-3장은 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이방인들이 죄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과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죄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잠깐만요, 당신들 유대인들도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 모두가 죄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이방인, 죄 많은 유대인, 죄 많은 우리 모두는 죄 많은 로마인입니다. 1장, 2장, 3장.

이것은 우리 문화 때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보라,” 세례자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누가 무엇을 합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는 자.” 그리스도의 주된 기능은 세상의 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화가 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을 부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존재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군가가 죄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당신은 구원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따라서 구세주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가 당신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입니까? 내가 괜찮다면, 당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은 정말 중요하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공격을 받았다는 걸 압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어휘에서 씻겨 나가고 미국에서 우리의 존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8과 32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힐데브란트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두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아시다시피,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민수기에서 삼켰습니다. 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었고, 그것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8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느니라."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사악함으로 진리를 억누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악에 내어주셨으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 자신의 멸망입니다. 그는 그들을 그들 자신의 죄에 내어주시고 그들 자신의 죄는 그들 자신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죽음을 당할 만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합니다."

로마서 12:9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2:9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제가 그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것에 집착하십시오.” 저는 고든 칼리지에서 여러 면에서 그것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것에 집착하십시오.” 선한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선한 것에 집착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첫 번째 증오의 다른 측면을 건너뛸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미워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악한 것을 미워하는 대신, 글썄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지 봅시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저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여기에는 악한 것을 미워하십시오. 선한 것에 집착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여기 성경의 일부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개념입니다.

그럼 전형적인 변명은 무엇일까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떤 변명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어떻게 한 문화권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잘못되었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실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요르단입니다. 그들은 케모스라는 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아이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이 신 K마트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그들의 문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괜찮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자녀 희생은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것입니다. 문화가 이런 것들을  
 지시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제 학생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모두가 "아 맞아요,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문화에 따라  
 달라요"라고 말하지만, 만약 제가 시험에서 8점을 받은 학생, 예를 들어 90  
 점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F를 입력하고 시험지를 학생에게 돌려보내면서 "음  
 , 모든 게 상대적이예요. 그래서 90점을 받았으니 F를 주었어요. 그 90점에 F  
 를 주었고, 시험지에서도 90점을 받았어요. F를 주었어요. 모든 게  
 상대적이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당신에게 좋은 게 저에게는 좋지 않아요  
 . 그래서 "를 주었어요. 그들은 피를 흘리며 소리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발을 딛는 순간 답은 '아니오'  
 라고 말해요. 모든 게 상대적이지 않아요. 어쨌든, 그들의 문화와 사물에서  
 사용되는 대로 모든 게 상대적이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저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죄나 문제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은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문화에서 PC가 있다는 걸 알죠.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들이 우리 문화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모두 PC에 대해 웃지만, 실제로 PC의 선을 넘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겁먹습니다. 아시다시피, 끔찍하고 그런 거죠.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강하게 세뇌되었는지가 제게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PC는 죄입니다. PC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에서 죄라는 개념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위반하면, 즉 PC는 우리 문화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경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대신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정말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좀 쉬게 해 달라고 합니다. 사회가 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 여기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온 것이므로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사회를 비난하세요. 그래서 사회는 이 모든 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적 책임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구약성경을 썼을 때 선택에 얼마나 중점을 두었는지, 그리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할 자유를 원하지만, 아무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여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제 유전자가 저에게 한 일이에요. 사실 저는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된 거예요. 제 유전자가 저에게 한 일이에요. 제 호르몬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 배경을 비난해요. 다시 말하지만,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부유층이 뭔지 알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나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니에요. 어쨌든, 텍사스에 사는 16살짜리 아이가 술에 취해서 나가서 한계를 훨씬 넘어요. 한계를 훨씬 넘어요. 술의 한계의 두 배나 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세 명이나 네 명을 죽였어요. 그들을 죽인 다음 변론에서 그들은 그가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차이를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부모가 그를 버릇없게 키웠어요. 그의 부모가 그를

버릇없게 키웠어요. 그러므로 그는 살인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죽었어요. 그는 돌아다니며, 글썩요, 저는 돈이 너무 많고 좋은 차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스스로를 도울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끊었어요.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는 떠났어요. 그 아이는 떠났고 지금은 최근에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다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을 위반하고 멕시코로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기로 여러분의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지만 이게 우리 문화에서 있는 곳이에요.

다른 한 명은 말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 트렁크에서 차 뒤에서 사람들을 쏘아 죽였습니다.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는 17살이었고 그들은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는 겨우 17살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는 여전히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이 된 후에 그를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을 앞뒤로 논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은 당신의 얼굴에 투사하여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당신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죄를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다시 입히는 측면에서 공격 모드로 들어가고, 당신도 위선자일 뿐이며, 죄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는 대신 사물을 비난합니다.

다른 주장은 물론 내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로라와 덴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남자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쏘았습니다. 그들이 극장 앞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는 주장하고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방탄 조끼를 입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는 그냥, 글썄요, 내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당신은 나에게 별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쳤고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모두 권리와 우리의 권리와 자유와 이런 종류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의 투사입니다. 저는 자유의 투사이고, 따라서 저는 자유의 투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지금 우리가 직장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남자는 알라 아크바르를 외치고 13명을 쏘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장 폭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알라흐 아크바르를 외치더라도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죄에 대한 관용을 정말 좋아합니다. 관용은 죄와 상대주의에 대한 큰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 우리는 죄의 개념을 정말

편하했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구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회개와 구원에서 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적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이고, 제 모든 죄, 저는 마약을 했고, 사람들을 다치게 했지만, 그것이 저를 오늘날의 저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가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문화가 정말, 정말 어려움을 겪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른 몇 가지를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라는 개념을 없앴을까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이런 종류의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 유전자가 저에게 그렇게 했고 사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반발하세요,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제게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심리적, 저는 심리적 문제가 있으므로 괜찮습니다. 상대주의, 관용, 자유. 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사랑과 은혜를 사용하여 은혜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입니다. 신이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리고 당신은 거기에 대해 몇 가지 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 신은 로마서 1장에서 보듯이 그들을 자신의 죄에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문화적 개념과 범문화적 개념을 분리하는 것의 중요성은, 저는 영화관에 가는 것이 최악이었던 시대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때때로 과거 사람들이, 그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문화적 규범이었던 최악적인 것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건너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살인, 거짓말, 도둑질, 그런 종류의 것들, 탐욕, 질투, 그런 종류의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곳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매우 흥미롭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로마서를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만들어진 것에서 분명히 보여 이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은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그의 영원한 능력, 그의 신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목공과 같습니다. 목공에 대해 뭔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품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뭔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자연에서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시편 19편에서 말씀합니다.

### I. 로마서 1-3장 죄 많은 이방인들, 죄 많은 유대인들, 모든 죄인들 [58:30-1:05:08]

로마서 1장에서 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포기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을 읽어 내려가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통찰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글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예' 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6 이하. 그는 말합니다. 2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죄악스러운 정욕에 그들을 내어주사 서로의 몸을 더럽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에 대한 정욕에 불타올랐습니다. 남자들은

다른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악으로 묘사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십니다.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간직하는 것이 가치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림에서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에 내주셨고 이제 그것은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타락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들은 온갖 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그는 여기에서 사악함, 탐욕, 타락의 목록을 내려갑니다. 그들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험담하는 자들입니다. 험담하는 자가 이 죄들의 목록에 있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그들은 수군거리고, 중상모략하고, 신을 미워하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이해심이 없고, 충실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죽음을 당할 만하다는 신의 의로운 판결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이런 일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이 미덕의 목록을 주고 다른 곳에서는 그런 종류의 기소입니다. 여기 악덕의 목록이 있고, 그런 종류의 행동에 대해 나열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까요? 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까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바울이 3장에서 말한 요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2장 4절에 로마서 2:4에 이렇게 말하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을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내 죄를 회개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친절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야 합니다.

현대의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로마서 1:18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함으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고 언급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에서 같은 종류의 생각에 대해 언급합니다. “오직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위하여 네 자신에게 진노를 쌓고 있느니라. 그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죄가 있고, 그런 나선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욕망에 맡기시는 나선형이 있습니다. 그런 나선형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다음 그는 유대인들 옆으로 가서, 좋아요, 이방인들은 죄가 있고 모든 유대인들이 박수를 칩니다. 네, 이방인들은 죄가 있고, 그들은 이런 모든 악덕과 것들로 나선형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유대인들이 죄가 있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이 왜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2장 2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를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20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을 사람은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느니라.”

구약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취하여 그 기능을 역전시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죄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을 경험한다면, 율법은 그들이 죄인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대신 율법을 취하여 그들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여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뒤집혔는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취하여 일종의 교만함,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선언하는 오만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깨고, 잠깐, 잠깐, 잠깐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고, 예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밀어넣어 그들이 죄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율법은 사람들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J. 로마서의 주제: 전적 타락 [1:05:08-1:14:32]**

이제 로마서의 몇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이 하마르티올로기가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 중 일부를 다룰 것입니다. 이것들은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전적 타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개혁된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전적 타락은 컷습니다. 저는 "전적"이라는 단어와 그런 종류의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데 동의하지만, 하마르티올로기는 죄에 대한 연구이고,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구원이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타락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완전한 타락에 빠지고 교실을 둘러보며 "아, 이 학생들은 모두 완전히 타락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게 됩니다. 모든 곳에서 죄를 보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은 완전한 타락에 대해 말할 때,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 제 자신의 타락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타락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내면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갖 일에 연루된 이 불쌍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감옥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강간범, 아동 성추행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전적인 타락을 적용합니다.

저는 "전체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타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타락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의로운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진술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약간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을 자가 없나니 도리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인간의 친절의 가장 큰 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한 저의 배경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는 아름다운 진술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방인들은 죄가 있고 로마서 1장과 유대인들은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그러니까 죄와 은혜, 율법과 행위, 육신과 영 사이에 이런 종류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회개라는 개념은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서에서 특히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 그 단어는 “shub”로 “돌이키다”입니다. Metanew는 “돌이키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회개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전형적인 예 중 하나는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디애나주 미시간 시티에 있는 최고 보안 교도소였습니다. 제가 가르친 사람 중 한 명은 프로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프로보라

부르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불렀습니다. 프로보는 꽤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이커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크고, 크고, 황소처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지만, 그의 온몸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보이는 모든 곳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보가 수업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프로보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반박하고 성경이 틀렸다고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일종의 불신자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로보는 베트남 참전 용사였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에서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는 아마 두세 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게 다가와서 성경에 대해 논쟁하고 앞뒤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아마 우리가 말하는 방식대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곤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매우 대립적이었어요. 그는 매우,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 시절에는 DMZ 비무장 지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를 DMZ 뒤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사람을 죽이도록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가 총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총을 쏘았고 그들은 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를 DMZ 반대편에 내려놓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가 있어서는 안 될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손에 칼을 주었고 기본적으로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당신의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를 훈련시키고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특수 부대원이었고 그들은 그들을 정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미국에 돌아왔고, 그들은 그에게 온갖 금속을 씌웠습니다. 그는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술집에 있었고, 여기는 미국입니다. 그는 지금 미국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술집에 있었고 술집에 있던 두 남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들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생각 없이 Probo.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싸움을 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는 다음에 기억나는 것이 양쪽에 두 명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는 그냥 자신의 일을 했고, 쿵, 그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훈련을 받았고, 그는 이것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기본적으로 그의 남은 인생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보가 수업 시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정말 후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회가 있었고, 무게와 회개, 살인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이 그의 영혼에 큰 부담이 되었는데, 그는 내면이 매우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고, 모두가 그 녀석이나 남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꽤 용감한 전사였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성하는 동안, 저는 그가 술집에서 죽인 두 사람에 대해 말하는 줄 알았지만, 그는 나를 바로잡고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술집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했지만, 베트남에서 제가 죽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냥 느낀다고 말했고, 그것은 그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제가 말할 때, 그것은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제 말은, 그것은 거의 이 크고, 크고 강인한 사람이 직장에서 한 일을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큰 일이고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려면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인데, 제가 언급해야 할 것은 새로운 바울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은혜, 죄와 은혜, 율법과 은혜, 그런 종류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서가 유대교를 넘어서는 운동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필요와 충분함보다 더 보입니다. 유대교에서 한 걸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씌름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할례, 특정 유형의 음식을 먹는 것, 의식적 요구 사항과 같은 모든 민족적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고 이러한 민족적 표식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결론은 회개입니다. 고백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과 함께 이 진술을 얻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죄의 고백은 용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죄인에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기고, 우리 자신 안에 숨깁니다. 우리는 합리화하고, 글썽요, 정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떠납니다. 그러니 이것은 꽤 큰 문제입니다.

#### K. 로마서의 주제: Sola Fidei [1:14:32-1:21:01]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나는 그것을 옹호하고, 우리는 그것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옹호합니다. 이제 솔라 피데이(Sola fidei)입니다. 이것을

언급하고 싶습니까? 여기에 태양 신앙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까? 이것은 구원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화면에서 이것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솔라 피데이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만든 것입니까? 답은 아니요입니다. 사실, 로마서 5:1과 같은 곳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0:8-9.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암기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고,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다. 만일 너희가 선포하면”, 이것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것처럼, “만일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할 것 중 하나는 예수가 주님이고, 예수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강력합니다. “만일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입으로 믿음을 공표하고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솔라 피데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잠깐만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저는 잠시 동안 진짜, 일종의 초개혁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언급하여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다는 증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서 일종의 논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행한 일로 의롭다고 여겨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15장을 인용하여 “우리 조상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제단에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행한 일로 의롭다고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그의 믿음과 그의 행함이 함께 일하고 그의 믿음은 그가 행한 일로 온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이 믿음만으로도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보느니라.” 이것은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믿음만으로도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보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솔라 피데이-오직 믿음으로-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믿음이며 함께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의 서신 중 일부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루터조차도 야고보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가 “진짜 짚더미 같은 서신”이라고 말했고,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메시지 중 일부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되살렸고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로 돌아가 보세요. 양과 염소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양을 제 왕국에 들여보내야 합니까?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이 와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목마르자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이건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7, 우리는 마태복음서를 읽을 때 이걸 다루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여기서 언급을 놓쳤네요. 네, 거기에 있습니다. 21절 죄송합니다. 7:21절입니다. 마태복음 7:21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끝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다고 말하고 그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 장은 12:49 마태복음, 마태복음 12:49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으니 누구든지 이를 위함이니라.” 그리스도, 어머니, 형제는 누구인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싶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당신은 그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아니, 마태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고 말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중요한 점들이죠. 믿음과 행위가 함께하는 것과 같고, 여러분은 일해야 합니다. 이제 행위는 여러분이 무엇이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은 아닙니다. 타락은 그렇습니다. 전적, 아닙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 L. 로마인: 구원론적 용어 [1:21:01-1:30:58 끝]

이제 여기 마지막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구원론이라고 불리는 것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구원론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론은 로마서입니다. 구원에 대한 연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죄에는 온갖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죄는 단순한 단일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물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의 모든 다양한 결과와 측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론적 용어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양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구원론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의롭다고 함. 이것은 한 측면입니다. 의롭다고 함.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로마서 5:1에서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우리가 의롭다고 함,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의가 우리에게 귀속된다고 말하는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취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의롭다고 함이란 법률 용어입니다. 마치 당신이

판사 앞에 서서 판사가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법정 소송을 마치면 당신은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는 의롭다고 함이며 법률 용어입니다.

또 다른 비법적 구원론적 용어는 "거듭남"이라는 용어입니다. 거듭남은 생명으로 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처럼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나는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은 구원론적 용어 몇 가지입니다.

여기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다시 사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들여졌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쇼생크 탈출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은 단지 되돌려진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은 값으로 사들여졌습니다. 당신이 되돌려진 당신의 죄의 값은 무엇이겠습니까? 되돌려진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값으로 사들여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노예가 되어 죄 아래 있었지만 이제 다시 사들여졌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구원받고 다시 사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개념입니다.

속죄: 속죄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개념과 함께 작용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은 부모님과 함께 이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 제가 이웃집 창문에 돌맹이를 던졌을 때, 어떤 아이가 제가 3층 창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내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창문에 돌맹이를 던졌고,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정말 화가 날 거라는 걸 알았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부끄러웠고 무서웠습니다 . 그래서 저는 가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 있었고 그들이 신에게 죄를 지었던 창세기 3장과 비슷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동산에 들어오고 그들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 이제 그들은 덩굴에 숨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 글썄요, 그들이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면 덩굴에 숨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의 개념과 그 다음에 가려야 할 필요성. 창문으로 돌을 쏘았을 때, 아빠가 집에 오셨을 때 침대로 뛰어들어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당기고 숨기려고 했던 걸 알아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덮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당신이 가진 것은 덮개입니다. 덮개는 누구인가요?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었고, 각자 제 길로 돌아섰지만,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대속의 속죄가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라는 개념이 제거되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굴욕과 부끄러움을 참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부끄러움과 굴욕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도요. 많은 경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무에 맞고 매달리는 잔인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개념을 놓칩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의 일부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이 덮개를 씌웠고, 그것이 속죄라고 불립니다.

화해: 우리는 이전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죄에 대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신은 죄에 대해 분노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했고 당신의 부모님이 화를 냈다면, 당신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무언가를 했고, 무언가를 훔쳤고,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런 식의 일을 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때때로 화를 낼 것이고, 때때로 우리는 화를 낼 것입니다. 분노는 불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제 좋은 분노와 나쁜 분노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화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해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화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내와 함께 고전적인 예를 사용합니다. 아침에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일어나서 계란에 케첩을 바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손에 케첩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냉장고 문으로 가서 냉장고 문에 케첩이 묻었습니다. 닦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아내가 일어나서 문이나 손잡이에 케첩이 묻어 있습니다. 그녀는 보지 않고 그것을 잡습니다. 이제 그녀는 손에 케첩을 묻히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치우지 않았거나 그런 식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에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나에게 화가 났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녀의 화를 달래야 할까요. 아마 식료품점에 가서 그녀에게 꽃을 사서 집으로 가져가서 그녀의 화를 달래야 할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꽃은 두세 번만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걸 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꽃을 준 다음에 초콜릿을 주는 걸 제안하지만, 초콜릿은 항상 줄 수는 없어요. 두세 번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녀를 달래는 방법을 계속 바꿔야 해요. 하지만 신께선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신은 분노하시므로 달래야 합니다. 분노는 달래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달래집니다. 달래기는 신의 진노와 신의 진노를 달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는 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는 정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더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죄는 더럽고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범죄를 저지를 회원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죄를 씻어내려고 손을 씻습니다. 저는 정말 죄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방에 있었고, 거기서 나왔을 때 샤워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는 요한일서 2:1에서 언급됩니다. 정화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화해는 또 다른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며, 그러므로 원수들은 화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합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일의 일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고백과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다르코 박사님과 저는 얼마 전 용서와 화해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그는 용서와 화해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용서해 주지만 화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용서해 주지만 화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화해는 두 원수가 다시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화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또 다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이자 친구로 다시 연합시킵니다.

입양: 여기서 또 다른 아름다운 용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를 아바,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빠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많은 나쁜 일을 한 아빠가 아닙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알고 사랑하는 천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구원의 조건이며 죄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죽음, 장사, 부활, 그리고 믿음을 통한 우리의 참여와 은혜를 통한 초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모든 다양한 측면을 취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화해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구속받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의 다양한 측면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최고의 것을 기원합니다.

이것은 신약 역사, 문학,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테드 힐드브란트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3 로마서 1부입니다.